

2009 모두가 즐거운 공동체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

# 새터에서 이야기 성평등 자치

## 새터에서?

성평등 자치규약에서는 성별 권력관계, 이  
불평등을 야기시키는 권력관계를 지양하고  
공동체 내에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받지  
공동체에서 새내기와 정든내기가 처음 관  
하는 것입니다.

자, 한번  
살펴봅시다!

- 성폭력이란, 동의를 구하지 않  
신체적 행위 및 요구, 그리고  
체성에게 위협적이거나 적대적
-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지  
느낄 상대방을 생각하세요.
- “여자는 이래~” “남자는 O  
방망이가 아닙니다. 말을 하기  
쾌감을 주지 않을지 생각해봅  
존극을 준비할 때, 특히나 신

# 하는 규약

애중심주의, 권위주의 등 사람들 간의 관계맺음에서  
성별 · 성정체성 · 성적 지향으로 인해 특정 개인이  
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 
맺음을 시작하는 데 있어 새터에서 꼭 이야기되어야

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·정신적·  
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. 특정 성·성정  
상황의 조성까지 포괄합니다.

마세요! ‘친밀감’의 표시라고 우기기 전에, 불쾌감을

“~” 성별은 개인의 모든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도깨비  
전에 자신의 성별에 대한 고정된 관념들이 누군가에게 불  
2. 개인의 불쾌감을 자아낼 수 있는 성별 고정관념들은  
서야 하는 부분이겠죠?

-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문제제기  
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행위는
- 이성애만이 '정상' 이라는 것  
이성애중심주의, 호모포비아는  
새터 행사에서 이러한 폭력들이
- 학번과 나이가 술에 대한 강권  
무마시킬 수는 없습니다.



혹시라도  
이런일이  
발생하면?

성폭력 사건이라고 생각되었을  
언제든지 상담이나 지원을 요청  
연락하세요. 총여학생회나 학내

- 내가 속한 단과대/반 학생회
- 총여학생회 [woolim@yonsei.ac.kr](mailto:woolim@yonsei.ac.kr)
- 학내 성폭력 상담실 [helper@yonsei.ac.kr](mailto:helper@yonsei.ac.kr)

했을 때, 무턱대고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에게  
명한 2차 가해입니다.

이성애중심주의 사회의 착각!

양한 성적 정체성을 억압하는 폭력입니다. 술자리나  
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.

성폭력 사건의 문제제기 묵살 등의 폭력적인 행위를



, 혹은 이것이 성폭력일까 아닐까 고민되는 경우에도  
수 있습니다. 언제든지 단과대 학생회 여성주체에게  
성폭력 상담실로 연락하셔도 도움을 드립니다.

성주체

.kr / 02) 2123-3645

onsei.ac.kr / 02) 2123-2118

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yeoyeon.cyworld.com